

**Special**

가장 뜻 깊은 역사의 발자취, 그들의 가장 특별한 기념작

**25th**

*Anniversary*

기념작으로서의 완성도가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준다

# Audio Physic Tempo 25 클 장현태



**템포** 25는 독일을 대표하는 하이엔드 스피커 브랜드인 오디오 피직이 창립 25주년을 기념하여 발표한 제품이다. 기념작인 만큼 이 제품은 기존 템포 시리즈를 개량하고, 상급 라인업인 비르고의 노하우들을 접목한 완성도 높은 제품으로 탄생되었다. 그리고 기존 템포 VI보다 더욱 깊이 있고 여유 있는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는데, 템포 시리즈에서 핵심적인 기술로 강조하고 있는 음의 도달 거리와 시간축 정합 방식을 템포 25에도 고스란히 적용, 후방으로 기울어진 캐비닛 형상을 따랐다. 또한 템포 시리즈는 오랜 세월만큼 많은 세대 변화를 겪었는데, 1986년 북셀프 타입을 시작으로 현재는 플로어스탠딩 타입을 기본으로 한 6세대 제품이 생산되었고, 2000년 이후 베이스 영역은 지금의 더블 우퍼 구조로 바뀌면서 현재의 디자인이 유지되고 있다.

템포 25는 외관만을 본다면 이렇게 작고 슬림한 스피커에서 과연 깊이 있는 사운드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지만, 실제 제품의 사운드를 경험해 본다면 기대 이상의 만족감을 찾을 수 있다. 이는 템포 25에 장착된 각 드라이버 유닛들의 성능의 역할이 크다. 가장 먼저 시선을 끄는 것은 미드레인지. 상급 모델인 비르고와 동일한 이중 바스켓 구조의 HHCM 유닛이 채용되어 있으며, 두 개의 바스켓 프레임 구조를 통해 자연스럽고, 정교한 사운드를 재생해 준다. 그리고 저역을 담당하는 베이스 유닛은 측면에 장착되어 있는데, 기존 템포 VI와 동일한 구성으로 7인치 알루미늄 콘 우퍼 두 개를 서로 등을 돌려 맞게 장착하여 바깥쪽을 향하도록 했다. 마치 작용·반작용의 효과를 기대하도록 패시브 타입으로 구성되었고, 후면 포트도 여기에 맞추어 설치되었다. 고역을 담당하는 트위터는 HHCT2가 장착되었는데, 미드레인지 드라이버와 마찬가지로 더블 바스켓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안쪽의 바스켓은 밀도가 낮은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졌고, 바깥쪽은 밀도가 높은 금속 재질로 이루어진 이중 구조로, 이를 통해 울림에 자유롭고, 진동을 최대한 억제해 줌으로써 견고한 트위터로 완성되었다. 특히 HHCT2 트위터의 사운드는 혼탁함 없이 깨끗한 배경을 재생해 주는 장점이 있다. 간단히 언급했던 각 드라이버 유닛들과 캐비닛 구조의 조합을 통해 만들어지는 사운드는 크기가 작은 슬림한 톨보이형 제품이지만, 실제 사운드를 들어보면 크기를 무색하게 하는 깊이 있는 사운드와 무대가 펼쳐진다.



첫 곡은 에미 후지타가 부른 'Desperado'를 들어보았다. 첫 느낌은 명료함·정확함·차가움이라는 세 단어가 떠오르는 군더더기 없이 단정한 사운더라는 것. 짧은 잔향과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은 건조하게 다가왔고, 배음이 깨끗한 고역은 오히려 불필요한 과장 없이 자연스러운 재생을 유도하였다. 재즈곡



으로 덕 하이먼의 'From The Age of Swing'을 들어보았는데, 스네어 드럼과 심벌의 간결한 표현이 중심에 있으며, 피아노를 강조하기보다는 리듬 악기의 조밀한 조화가 스피커 외관과 안성맞춤이다. 그리고 스윙 재즈 특유의 스윙 리듬을 잘 표현하기 때문에 작은 스테이지의 소편성 재즈 연주를 충분히 만끽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대편성곡 생상 교향곡 3번 op.78 오르간 중 3악장을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와 가스통 리타이즈의 오르간으로 들어보았다. 템포 25는 정위감이 좋아 오케스트라 각 파트의 소리를 빠짐없이 들려주어 가끔은 모니터적 성향도 엿볼 수 있었으며, 금관의 화려함과 현악기의 표현이 잘 조화를 이루고, 전체적으로 오르간이 중심에 있는 레코딩 분위기를 여과 없이 재생해냈다. 일체지 관현악이 울릴 때는 스피커 앞으로 소리를 쏟아내기보다는 절제된 에너지를 간직하고 있었다.

정리를 해보면 우선 외관에서 보이는 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예상을 뒤엎는 사운드로 상급 기종인 비르고의 사운드를 닮아 있었다. 사운드를 앞으로 쏟아내기보다는 스피커 뒤쪽으로 자리 잡는 깊이 있는 무대가 특히 인상적. 무엇보다 템포 25는 이들의 25주년 기념작답게 안정적이고, 음악성이 강조된 사운드에 바탕을 둔 그들의 사운드 철학이 고스란히 잘 반영된 제품인 것 같다. 외관은 슬림하지만 깊이 있는 사운드와 부족함 없는 저역 재생이 돋보이는 제품이며, 슬림한 스탠딩 타입이기 때문에 공간이 크지 않는 가정의 세팅 환경에도 잘 대응할 수 있는, 사운드·디자인 요소에서 장점을 두루 갖춘 스피커라고 할 수 있다. **A**

**수입원 : 다움 (02)587-7300**

· 가격 : 715만원 · 구성 : 3웨이 4스피커 · 인클로저 : 베이스 리플렉스형 · 사용유닛 : 우퍼(2) 18cm, 미드레인지 15cm, 트위터 3.9cm · 재생주파수대역 : 32Hz~40kHz · 임피던스 : 4Ω · 출력음압레벨 : 89dB · 권장 앰프 출력 : 20~150W · 크기(WHD) : 18.7×100×32cm · 무게 : 20kg